

고등학교

주제 탐구 독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제 탐구 독서』는 공통국어1, 2의 읽기 영역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서, 여러분의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책과 자료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읽으며 탐구하고,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세워 나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여러분이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① 주제 탐구 독서의 개념과 단계를 구체화

안내 단원인 1단원을 통해 주제 탐구 독서의 개념과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제 선정-탐구 독서-관점과 견해 형성-공유와 성찰’의 4단계 모형을 바탕으로 주제 탐구 독서를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다양한 분야의 주제와 자료 기반의 주제 통합적 탐구 활동

2~4단원은 각각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글과 매체 자료를 골고루 다루어 모든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탐색을 위해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원을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희망 진로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 탐구 과제 중심의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나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심화·확장된 독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서·논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맥락에서 **맞춤형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주제 탐구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탐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즐거운 주제 탐구 독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은이들의 마음을 모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도입



- ◆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을 살펴보고, 대단원을 통해 그려질 핵심 역량을 확인합니다.
- ◆ 도입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대단원에서 어떤 주제 탐구 독서를 하게 될지 떠올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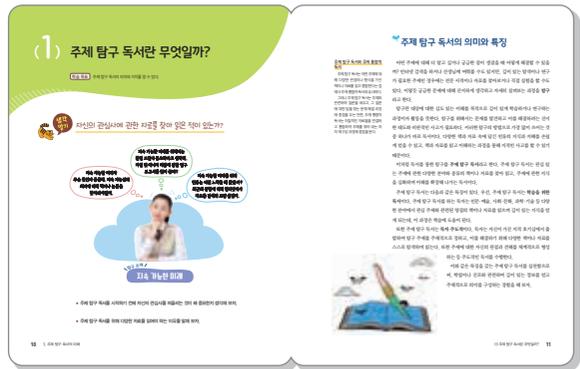


QR 코드를 활용해 보세요.

QR 코드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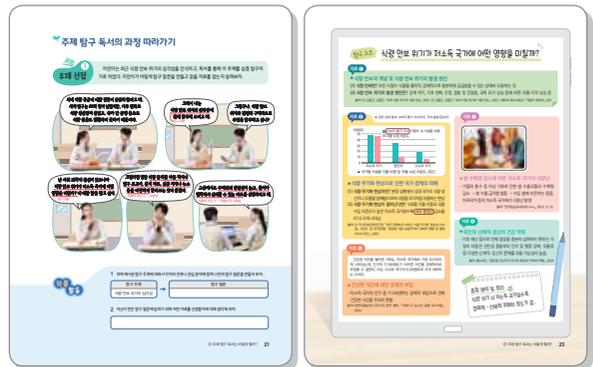
소단원 학습

1_ 이론 단원



이론

주제 탐구 독서의 개념과 특징, 주제 탐구 독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꼼꼼히 이해합니다.



과정 따라가기

주어진 대화를 통해 지민이의 주제 탐구 독서 과정을 따라가며, 자신은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주제 탐구 독서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2,3,4_ 활동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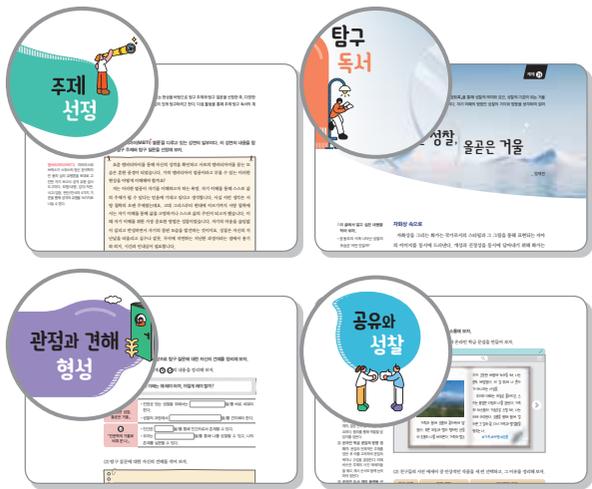


◆ 소단원 도입

| 소단원 활동 미리 보기 | 소단원에서 수행하게 될 주제 탐구 독서의 구체적인 과정을 미리 살펴봅니다.

| 생각 열기 | 제시된 삽화를 보며 소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 소단원 활동 준비하기 |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여 앞으로 수행하게 될 주제 탐구 독서 활동을 준비합니다.



◆ 단계별 활동

| 주제 선정 |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탐구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탐구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 탐구 독서 | 관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책과 자료를 깊고 넓게 읽으면서 생각을 확장합니다.

| 관점과 견해 형성 | 탐구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정리하고 표현합니다.

| 공유와 성찰 | 탐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제 탐구 독서를 성찰합니다.



대단원 마무리



◆ 단원 마무리

대단원에서 수행한 주제 탐구 독서의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단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 주제 탐구 독서의 방법을 활용해 자신의 희망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 주제 탐구 독서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합니다.

이 책의 차례

1. 주제 탐구 독서의 이해

- | | |
|-----------------------|----|
| (1) 주제 탐구 독서란 무엇일까? | 10 |
| (2) 주제 탐구 독서는 어떻게 할까? | 16 |

2. 나를 이해하고 세계를 탐구하고

- | | |
|-------------------------|----|
| (1) 거울로 비춰 보는 나 | 30 |
| 가 진정한 성찰, 울곧은 거울 _ 정재찬 | |
| 나 인문학의 거울로 비춰 본 나 _ 신승환 | |
| (2) 예술이 보여 주는 세계 | 60 |
| 가 예술에 들어 있는 통찰 _ 매튜 키이탄 | |
| 나 예술, 기후 위기를 주목하다 _ 김영애 | |
|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 89 |



3.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향하여

(1)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96
가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_ 서은국	
나 평등해야 건강하다 _ 리처드 월킨슨	
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 - 환경 영역	
(2)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126
가 고립의 시대 _ 노리나 허츠	
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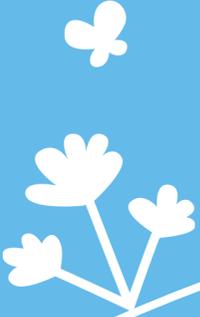
4.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 기술

(1) 유전 공학의 두 얼굴	162
가 유전체를 고쳐 쓰다 _ 올란다 리지	
나 유전자 가위, 어디까지 써도 될까? _ 이고은	
(2) 영원함에 대한 인간의 도전	188
가 관내 분실 _ 김초엽	
나 노화를 되돌린다? 불로장생을 향한 도전 _ 오혜진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215

부록 (제재 글 출처 사진 자료 출처 큐알 코드 목록	220
------------------------------------	-----



3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향하여

(1)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 **학급 도서 전시회 개최하기**





현대 사회는 일자리 부족, 환경 오염, 고령화, 인간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다양한 책과 자료를 찾아 읽고, 그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볼 것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1)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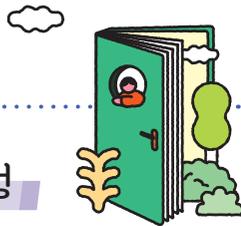
- 사회·문화 분야의 책과 자료가 지닌 특성을 파악하며 주제 탐구 독서를 할 수 있다.
- 행복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책과 자료를 탐색하여 읽으면서,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제 탐구 독서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소단원 활동 미리 보기



1 주제 선정

-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과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탐구 주제 선정하기
- 주제 탐구 독서 계획안 완성하기



3 관점과 견해 형성

-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변화나 노력에 대한 모둠의 견해 정리하기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 조사하기
- 모둠의 견해와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2 탐구 독서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자료 읽기
- 가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_ 서은국
- 나 「평등해야 건강하다」_ 리처드 월킨슨
- 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환경 영역」_ 통계청
- 주제 탐구를 위한 추가 자료를 탐색하여 읽기
- 책과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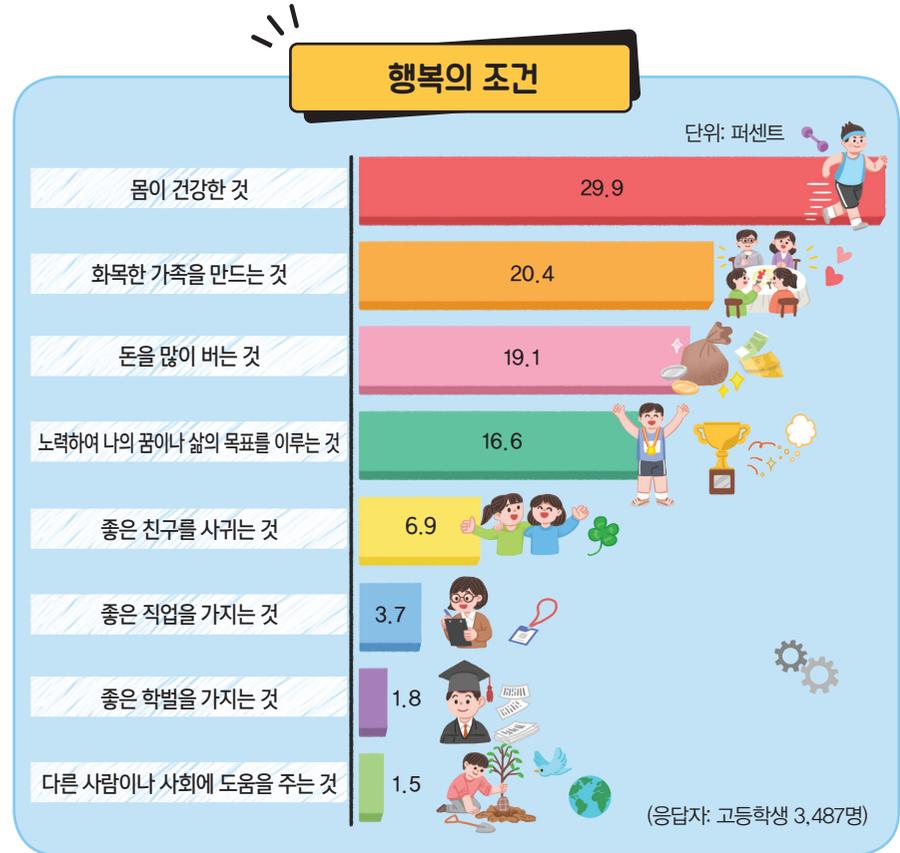
4 공유와 성찰

- 완성한 인포그래픽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하고, 댓글로 소통하기
- 나의 희망 진로 및 관심 분야에서 행복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기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 연구」, 2023

소단원 활동 준비하기

-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자.

예)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던 순간

-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이야기해 보자.

예)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주제 선정



재희네 모듬은 사회 분야의 주제 탐구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행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려고 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면 주제 탐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책과 자료들을 탐색하며 주제 탐구 독서를 계획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1 재희네 모듬이 탐구 주제를 선정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K-SDGs]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합[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 및 경제 발전, 환경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통합사회 시간에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 대해 배웠잖아. '행복'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주제니까 '행복한 사회'를 탐구 주제로 주제 탐구 독서를 해 볼까?

'행복', '행복한 사회'를 핵심어로 검색하다 보니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알게 되었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속가능발전포털

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2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 변화와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전	15 육상 생태계 보전	16 평화·정의·포용	17 지구촌 협력 강화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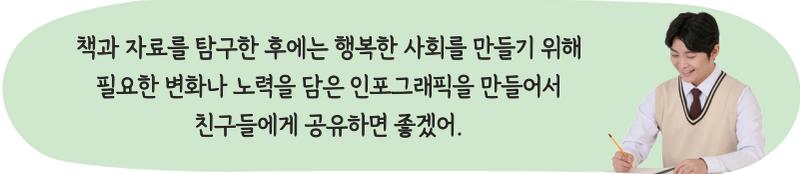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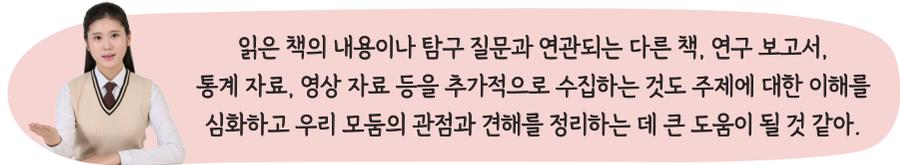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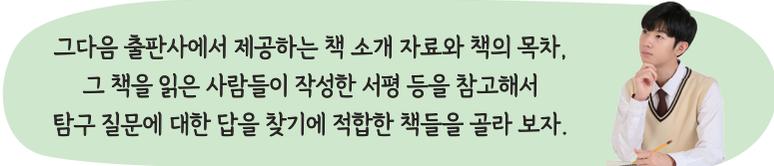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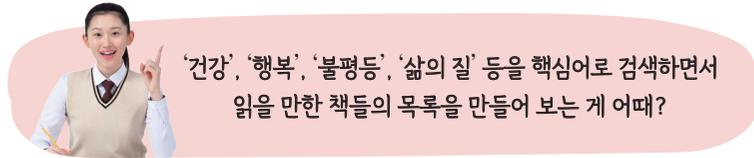
📌 도움말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중 같은 것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모듬을 만들어서 주제 탐구 독서를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 모듬은 사회 문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해 탐구해 보자.

2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재희네 모둠의 주제 탐구 독서 계획을 완성해 보자.



인포그래픽

'정보 그림'이라고도 한다.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흥미를 유발하면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주제 탐구 독서 계획안 |

탐구 주제	행복한 사회	
탐구 질문		
주제 선정 이유	'행복'이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주제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과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를 바탕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에 대해 탐구해 보려 한다.	
주제 탐구 독서를 위한 책과 자료	제목	필자(작성 기관)
	『행복의 기원』	서은국
주제 탐구 독서의 결과물		

탐구 독서



다음은 행복을 느끼는 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행복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지, 일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_ 서은국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낄까?
- _____
- _____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좌우된다는 믿음'이 착각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행복을 좇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 이윤을 가져다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5 10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이 생각은 동시에 가장 틀린 생각이기도 하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스콧 릴리언펠드 교수가 출간한,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큰 착각 중 하나도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이다.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간단하다. 지난 40년간의 행복 연구로 누적된 엄청난 양의 자료에서 나온 총체적 결론이다. 인생의 여러 조건들, 이를테면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등을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 약 10~15퍼센트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 심리학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퍼센트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 인생 90퍼 15 20

센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5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했지만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도승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적 조건에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
10 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한국은 이제 돈이나 비타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삶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복을 위해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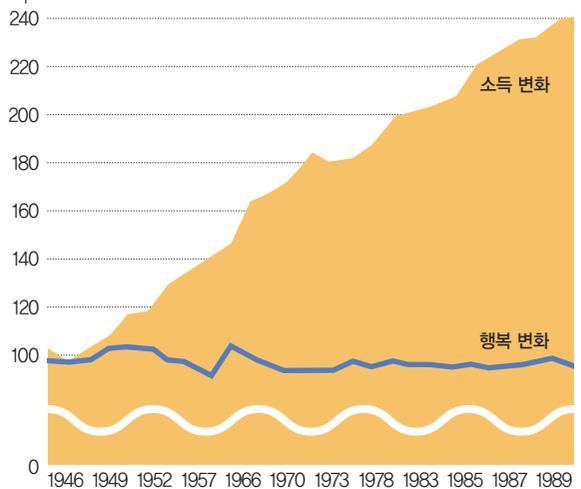
15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이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인생의 대표적인 외형적 조건 중 하나인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루 세끼 식사를 못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세끼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 음식을 살 돈은 더
20 이상 행복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의 행복과 경제 수준은 서로 손을 놓아 버린다. 국가 간 행복 지수와 국내 총생산[GDP]은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극빈한 많은 국가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25 다. 이런 최빈국들을 제외하면 이야기는 아주 달라진다. 선진국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 발전이 더 높은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레인 교수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가계 소득은 약 2배로 증가했지만, 미국인 중 ‘매우 행복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프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듯 미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 수준은 큰 변동이 없다.

 돈과 비타민은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내 총생산(國內總生産)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따위의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지표.

1946년 미국의 개인 소득을 100으로 산정.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치



▲ 미국의 소득과 행복 변화(에드 디너 외, 1999)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는 특히 높다. 흔히 그들의 높은 소득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 사회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 알바 알토의 얼굴이 새겨진 핀란드 지폐

두고 사는 곳이다. 핀란드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디자인했던 알바 알토의 얼굴을 화폐에 새긴 나라다. 일상의 작은 경험의 가치를 아는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행복한 사회의 특성 중 하나다.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다.

돈과 행복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0억 원을 받았던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다. 복권 당첨 1년 뒤, 21명의 당첨자들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25년째 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사건을 적어 보라 한다. 독보적인 1위는 복권 당첨이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복권 당첨, 새집 마련 등과 같은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순간의 짜릿함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엔젤레스 캠퍼스[UCLA]의 알렌 파르두치 교수는 '범위 빈도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나면, 예전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

 행복 더듬이가 둔해지는 또 다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의 복권 연구에서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

람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텔레비전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5 더욱이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까지 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맛'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도록 했다. 진짜 관심사는 대학생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즐기며 먹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10 초콜릿을 먹기에 앞서 설문을 했는데, 한 조건에서는 돈에 대한 생각을 살며시 하도록 설문지에 선명한 돈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다. 흥미롭게도 이 조건의 대학생들은 돈을 보지 않은 학생들보다 초콜릿을 덜 즐기며 먹었다. 그들은 초콜릿을 더 빨리 먹었고, 표정을 분석한 결과 덜 웃으면서 먹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 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즐기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15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극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생겨도 초기의 기쁨은 복잡한 장기적 후유증들에 의해 상쇄되어 사라진다.

20 프랑스의 사상가 라로슈푸코가 400년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승리의 환희도 패배의 아픔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무뎠어지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 강력한 적응의 힘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를 그린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저것을 놓치면 너무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오버'를 한다.

유학 시절, 지도 교수가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였는데,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

 돈 사진을 본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초콜릿을 더 빨리, 덜 웃으면서 먹었다는 실험 결과는 무엇을 말해 줄까?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쇄(相殺)되어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져.

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안의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이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 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은 선택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 『행복의 기원』 (2024)

서은국(1966~)

심리학자. '행복과 문화 차'가 전문 분야이며,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복의 기원』,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공저)』 등이 있다.



이해와 확장

내용 점검하기

1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필자가 말하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경제 수준에 따른 돈과 행복의 관계	하루 세끼 식사를 못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살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세끼 식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살 돈과 행복은 크게 관련이 없음.
미국의 소득과 행복 변화에 대한 로버트 레인 교수의 연구	



돈과 행복의 관계

(2) 행복과 관련한 감정의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해 보자.

특성	관련 개념이나 이론	사례
감정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적응	
감정은 상대적이다.		복권 당첨 후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함.



(3) 이 글의 제목인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시야 넓히기

2 재희네 모둠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탐색하였다.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다음에 나오는 가상 세계 두 곳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치자.

당신은 1년에 평균 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만 5천 달러를 버는 세상

당신은 1년에 평균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5만 달러를 버는 세상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대부분이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음을 전제로 기꺼이 총소득이 줄어드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대적인 소득에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선다면 자신의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대답했다.

소득에 대한 만족은 비교 기준에 달렸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라는 요소에 좌우된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올라갔다. 주변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더 편해진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기준도 올라간 것이다. 여기서 작용하는 중심 메커니즘은 비교 습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교를 하면서 현실을 왜곡해 인식한다. 그러나 행복의 비밀은 주어진 상황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 리처드 레이어드, 「불행을 부추기는 비교 습관」

메커니즘(mechanism)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1) 자신은 두 곳의 가상 세계 중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2) 윗글의 필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적어 보자.

(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보기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에는 비싼 음식, 화려한 옷이나 명품 사진 등을 올리며 '나는 행복하다'를 과시하는 게시물이 많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기를 종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종의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타인과의 비교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 씨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게 되면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진다.”라며, “행복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버리니 계속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우울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 2021. 7. 7.

• |보기|에 제시된 현상과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자.

도움말

「불행을 부추기는 비교 습관」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 타인의 게시물을 보면서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3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도움말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와 「불행을 부추기는 비교 습관」에서 이야기했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야. 소득의 증가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음은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평등해야 건강하다

_ 리처드 월킨슨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평등·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줄까?
- _____

계층 간의 건강 격차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달라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가 무료인 영국에서는 오히려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질병에 더 자주 걸리는가이다. 물론 일단 어떤 질병에 걸리면 계층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생존율의 차이보다 어떤 계층이 그런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되는지의 차이가 건강 불평등에서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군 의무대로 비유해 보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군 의무대가 전쟁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 사상자 수가 많거나 적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 의무대의 의료 수준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쟁 자체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사상자 수를 결정하는 전쟁의 성격이란, 한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적 생활의 특성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군 의무대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후적 의료 서비스가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다. 질병을 양산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보건 경제 연구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실업률

의무대(醫務隊) 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
사후적(事後的) 일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

에 따라 주민 1인당 처방 약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높은 행정 구역일수록 의약 처방률이 높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가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기보다 사회 경제적 삶의 특성인 실업률이 의료 체계가 부담해야 할 질병의 양을 결정했던 것이다.

5 약 25년 전 건강의 사회적 편차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 때, 나는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건강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이들이 누리는 물질적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바로 물질적 요인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이환율이나 사망률의 격차를 매우

10 정확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자기 통제력의 부족, 우울증, 절망감, 적대감, 신뢰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취약한 사회적 관계,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 가정불화, 업무 스트레스, 노동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물질적 대가, 근친과의 사별, 비혼과 이혼 상태, 고용·주거 불안정 모두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15 대체로 우리는 이런 심리적 상태가 개인의 성격이나 외부 환경의 우연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사회적 지위가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심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또한 인간 모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회의 공통

20 적인 관념, 그리고 자신의 감성적·심리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최근 들어 학계가 심리적이라는 표현보다 심리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사회적 환경과 개별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들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만약 당신이 무일푼에, 곧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며, 빚을 지고 있다고 해 보자. 그

25 령다면 당신은 매우 불안해할 것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서조차 이런 원인이 물질적인지 아니면 심리적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고용 불안정은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요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고용 불안정은 고용 상태 자체가 아니라 고용 상태가 불안한 데에서 오는 심리적 근심을 통해 건강을 악화

 물질적 생활 수준과 건강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고용 불안정이 심리 사회적 요인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환율(罹患率) 병에 걸리는 비율.
근친(近親) 촌수가 가까운 일가.

시킨다.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요인이 물질적 요인이고 어떤 요인이 심리 사회적 요인인지를 구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그 요인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악화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요인을 인식하거나 인지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대기 오염, 감염성 미생물, 비타민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건강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물질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고용 불안정이나 주거 불안정은 오직 우리가 고용 상태와 주거 상태 때문에 불안을 느낄 때에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이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의 감정이라면, 비록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물질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은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부채(負債)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그럼에도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심리 사회적 요인은 그것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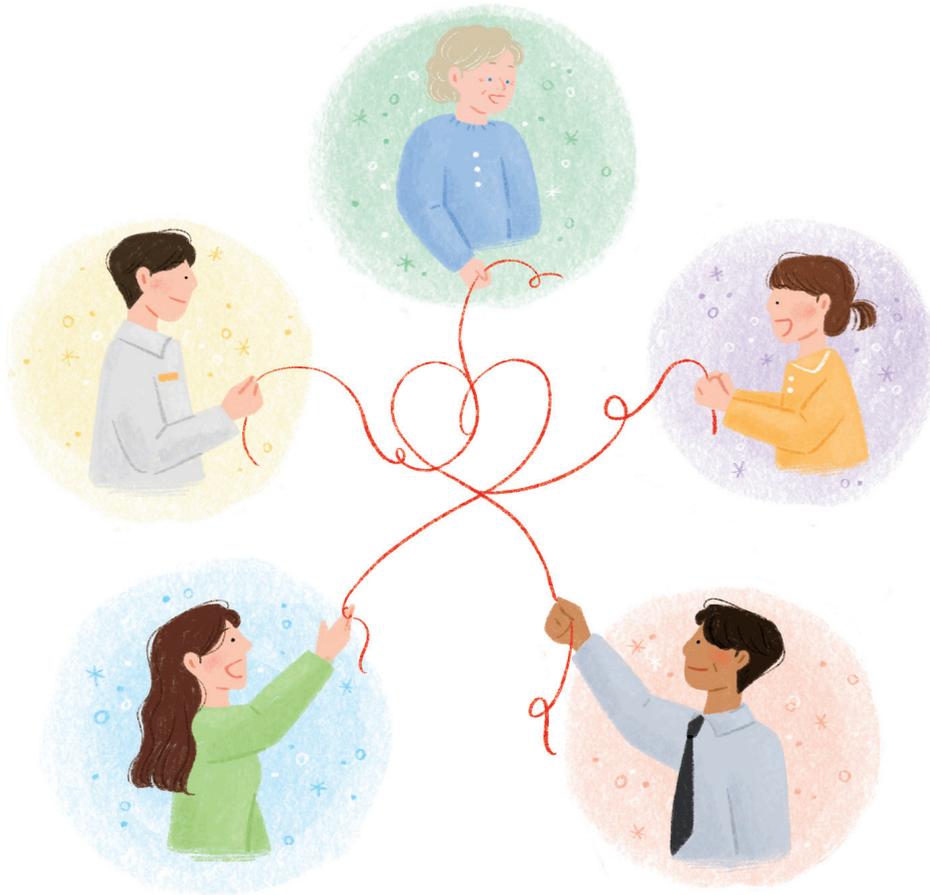
어떤 경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분류되었을 뿐이며, 외부의 물질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세계는 현실과 감정이 분리된 세계가 아니므로, 우리의 심리 사회적 상태는 물질적 상태를 반영한다. 특정한 물질적 상태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가 불행, 우울, 불안, 분노, 걱정 가운데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물질적 상태는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원인이다.

건강에 대한 심리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된다.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경험이며, 그런 경험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실제 현실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엇을 바꿀지를 판단하려면, 사람들이 세계를 자신의 주관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고 경험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이다. 건강 상태는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먹고 코로 무엇을 들이마시는지, 혹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 상태는 삶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심리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심리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말이 열악한 물질적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잘것없는 식사, 대기 오염, 흡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은 분명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 자체 때문에 암이나 심장병에 걸렸다고 무턱대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건강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요소들은 임금이 적고 직업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과 같은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중간 경로로 해서 건강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킨다.

건강을 해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룰 만한 권력과 자원이 없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열등감

 건강 상태를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가 거둔 물질적 성공에 비해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나 적대감을 느끼고 우울해질 때, 자신을 지지해 주는 친구가 없을 때 우리의 건강은 쉽게 나빠진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인류가 물질적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경험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평등해야 건강하다』 (2008)

리처드 월킨슨(1943~)



영국의 보건학자. 사회 역학과 공중 보건학을 연구하며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저서로 『평등해야 건강하다』, 『건강 불평등』, 『평등이 답이다』 등이 있다.

이해와 확장

내용 점검하기

1 「평등해야 건강하다」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다음은 이 글의 일부이다. 글 속의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적어 보자.

계층 간의 건강 격차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달라서 생긴 것은 아니다. (중략) 의료 서비스를 군 의무대로 비유해 보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중략) 어떤 전쟁에서 사상자 수가 많거나 적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 의무대의 의료 수준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쟁 자체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사상자 수를 결정하는 전쟁의 성격이란, 한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적 생활의 특성을 의미한다.

군 의무대의
의료 수준

전쟁 자체의
성격

(2) (1)을 바탕으로 건강 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파악해 보자.

(3)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해 정리해 보자.

- 심리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
자기 통제력의 부족, 우울증, 절망감, 적대감, 신뢰의 부족, _____, 노동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물질적 대가, 근친과의 사별, 비혼과 이혼 상태, 고용·주거 불안정 등
- 물질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의 차이

	요인을 인식하거나 인지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강에 영향을 미침. 예) 대기 오염, 감염성 미생물, 비타민 부족 등
	요인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악화됨. 예)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등

(4) 다음에 제시된 「평등해야 건강하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 보자.

-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 건강을 해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이러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인류가 물질적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 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 심리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리해 보자.

• 삶의 질과 건강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시야 넓히기

2 다음은 불평등에 대한 강연의 일부이다. 강연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 보자.

불평등은 단지 소득 분배나 경제 불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불평등이란 대다수 사람을 배제하면서 사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중략)

첫 번째는 '생명력 불평등'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의 불평등을 뜻하죠. 명심할 점은 우리가 말하는 게 차이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일부는 질병과 장





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걸 불평등이 아니라 선천적인 차이죠. 하지만 우리 수명과 건강은 사회 구조와 배제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은 '실존적 불평등'입니다. 자유와 자율성, 존중, 인정

의 불평등을 일컫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멸, 굴욕, 무시, 거부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평등은 아쉽게도 사회 과학적으로 연구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국가의 법률, 규칙, 그리고 교육과 주거에 대한 배제와 허용에서 불평등을 연구하죠. 또는 경멸, 분리, 차별, 낙인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위대한 수업』

(1) 빈칸을 채우며 강연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불평등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생명력 불평등	기대 수명과 <input type="text"/> 상태 등이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수명과 건강은 사회 <input type="text"/> 와/과 배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음.
실존적 불평등	자유와 자율성, <input type="text"/> , 인정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경멸, <input type="text"/> , 무시, 거부 등으로 나타남.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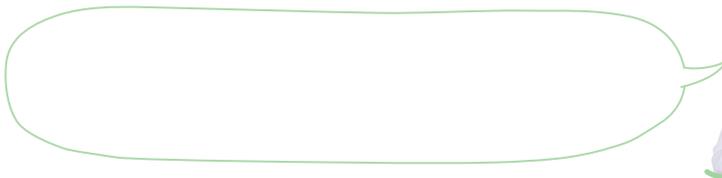
「평등해야 건강하다」에 제시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2) 우리 주변이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생명력 불평등'이나 '실존적 불평등'의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 직원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존적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중 환경 영역의 지표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이다.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국민 삶의 질 보고서

- 환경 영역 -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환경은 삶의 질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까?
- _____
- _____

환경과 삶의 질

5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 오염), 간접적(기후 변화)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 자연과 같은 환경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거주지 선택 등 사람들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 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란 객관적인 생활 조건을, '주관적 지표'란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를 말한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 방향 지표(+)와 부정 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환경 영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영역	객관적 지표(3)	주관적 지표(6)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농도*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불안도 ⊕ 대기질 만족도 ⊕ 수질 만족도* ⊕ 토양 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 환경 만족도

15

20

*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 지표임.

객관적 지표

- 대기 오염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이다. 여러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객관적 지표 중 하나인 미세먼지(PM₁₀)이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_{2.5})는 입자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도시공원이란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 시설이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 경관과 공원 시설(운동, 휴게 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주 지역 내에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의 유무는 개인 삶의 질과 여가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상수도는 보건 위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익 시설이지만, 상수도의 보급 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 환경이나 주택 구조, 해당 지역 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 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포(肺胞) 허파로 들어간 기관지의 끝에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 자루. 호흡할 때에 가스를 교환하는 작용을 한다.

시정(視程) 목표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 대기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거리에 따라 0~9계급으로 나눈다.



주관적 지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주관적 지표는 크게 기후 변화 불안도와 환경 만족도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환경 만족도는 생활 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 주는 대기질, 수질(하천), 토양 환경, 소음(진동), 녹지 환경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5

기후 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 정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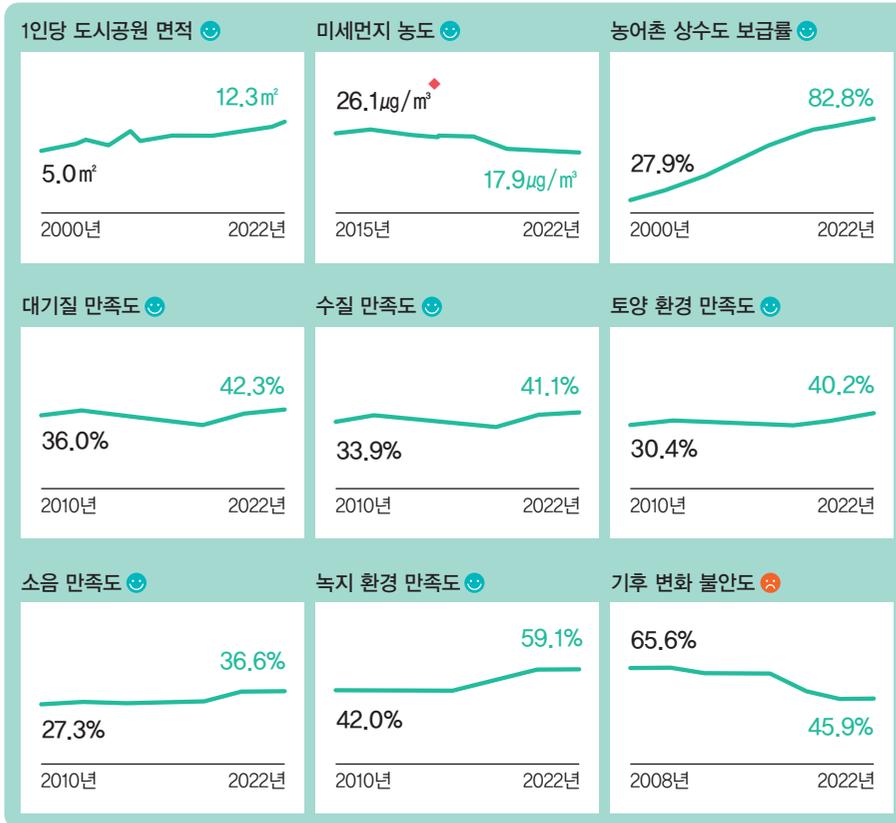
대기질 만족도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체감과 관련이 있으며, 대기 환경에 대한 만족을 보여 준다. 수질은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기 환경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과 연관되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토양 환경은 대기질이나 수질에 비해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소음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도로의 자동차나 철로의 전동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녹지 환경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산이나 공원 등 자연환경을 가리키며, 도시공원과 같이 개인들의 여가 생활 향유와도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15

 소음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웰빙(well-being)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



최근 추세



µg/m³(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나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로, 공기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입자의 무게를 의미한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4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의 추세를 보면 개선 지표는 8개, 악화 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 두 개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지표였으나, 2020년 감염병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아지면서 2020년부터 개선되는 추세이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높은 수준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바람의 영향이 커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 주는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은 모두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 불안도만 2020년 45.4퍼센트에서 2022년 45.9퍼센트로 소폭 증가하여 전기 대비 악화되었다.

- 「국민 삶의 질 2023」(2024)

기후 변화 불안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 점검하기

1 「국민 삶의 질 보고서-환경 영역」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환경 영역의 객관적 지표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① 미세먼지 농도

- 미세먼지란 건강과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 시민들의 _____ 이/가 높음.
- 국내외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_____ 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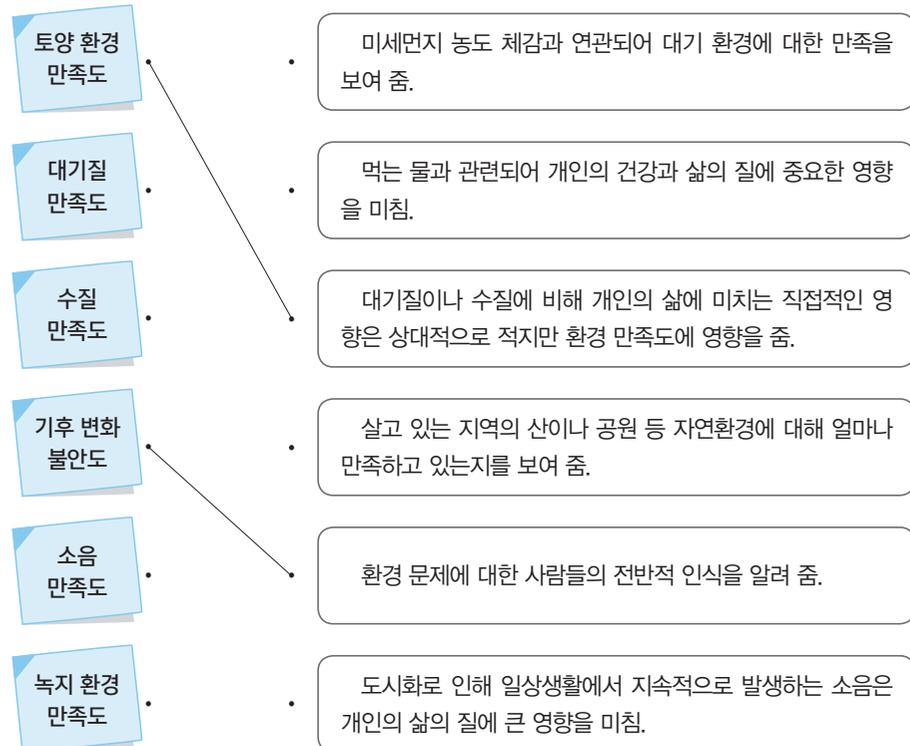
②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에 포함된 _____ 및 운동, 휴게 시설 등 _____ 의 양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유무는 삶의 질과 _____ 에 영향을 미침.

③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 수준은 각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_____ 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2) 환경 영역의 주관적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시야 넓히기

2 환경적 요인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불청객’ 미세먼지 ... 호흡기·뼈에 정신 건강까지 악영향

질병 관리청 국립 보건 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노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기도와 폐 등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신경, 심장, 신장, 뼈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이 2000~2011년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입원과 미세먼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미세먼지가 $10\mu\text{g}/\text{m}^3$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환자 입원이 2.7퍼센트 증가했고,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한 1.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 △△△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10\mu\text{g}/\text{m}^3$ 높아질수록 불안 장애로 인한 응급실 방문 위험이 각각 약 1.7배와 2.2배 높아졌다.

- 『연합뉴스』, 2024. 4. 6.

만성 폐쇄성 폐 질환(慢性閉鎖性肺疾患) 기관지의 공기 흐름이 막혀 발생하는 질병. 만성 기관지염, 폐경기증, 천식 따위가 있다.

(1) 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도움말

「국민 삶의 질 보고서-환경 영역」에 제시된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하여 해당 요인이 삶에 끼치는 영향이나, 해당 요인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보도한 신문 기사, 뉴스,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2)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를 찾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예전에는 주거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역세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숲세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단어는 숲이 주는 깨끗한 공기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관점과 견해 형성



1 지금까지 읽은 책과 자료를 종합하여 모둠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1) 제재 ㉠~㉣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자.

㉠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 •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는 태도
㉡ 「평등해야 건강하다」	
㉣ 「국민 삶의 질 보고서 - 환경 영역」	

도움말

제재 ㉠의 **시야 넓히기** 활동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 (1)에서 정리한 요인들을 토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나 노력에 대한 모둠의 견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자.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모둠별로 조사한 후, 이를 종합·정리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보자.

[활동 절차]

- ① 조사 주제와 목적,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 ②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 문항을 제작한다.
- ③ ②에서 제작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 ④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주제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한다.
- ⑤ 설문 조사 결과와 모둠의 견해를 담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나 노력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한다.

(1) 조사의 주제와 목적,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보자.

조사 주제	예)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조사 목적	예)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인, 사회, 환경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
조사 대상	예) 우리 학교 2학년 학생(약 100명)
조사 방법	예) 설문 문항 제작 후, 설문 링크 발송 혹은 학교 게시판에 구글 코드 게시

(2) 1-(1)에서 정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을 제작해 보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방법

① 데이터 수집하기

- 각 응답자별 응답 건수에 따른 총 응답 건수를 집계한다.
- 예) 100명의 응답자가 3가지의 요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총 응답 건수는 300건이다.
- 각 요인별 응답 건수를 구한다.

② 응답 항목의 비율 계산하기:

각 요인별 응답 건수를 총 응답 건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요인별 백분율을 구한다.

③ 결과 정리하기: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한다.

예)

1 다음 제시된 요인들 중,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표시		표시
· 개인 여가 시간의 증대	<input type="checkbox"/>	· 취업 문제 해결	<input type="checkbox"/>
·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	<input type="checkbox"/>	· 사회적 연대 강화	<input type="checkbox"/>
·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감	<input type="checkbox"/>	· 공원, 녹지에 대한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 소득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 깨끗한 환경(대기질, 수질 등)	<input type="checkbox"/>

2 제시된 요인 외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_____

(3) (1)과 (2)를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자.

인포그래픽 제작 방법

- ① **내용 정리하기:** 인포그래픽을 통해 전달할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제작 시안 구상하기:** 화면 구성, 정보의 배열, 시각 자료 활용 등을 논의하여 제작 시안을 구상한다.
- ③ **인포그래픽 완성하기:** 제작 시안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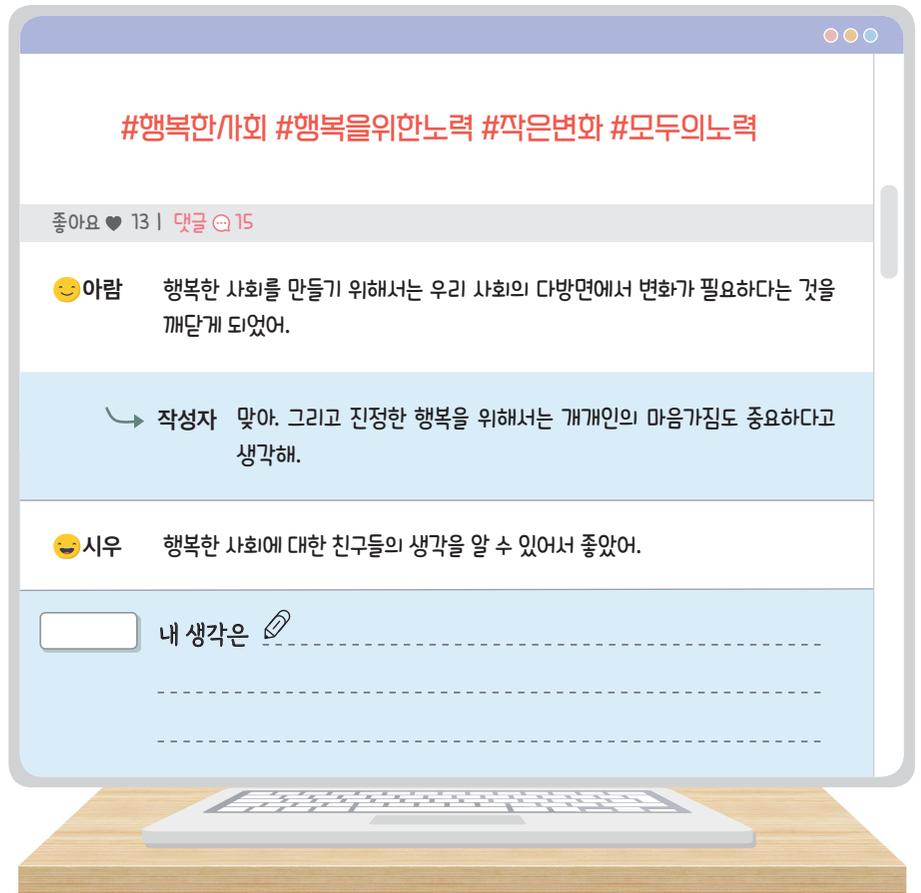
(4) 설문 조사 결과 및 1-(2)에서 정리한 모둠의 견해를 담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나 노력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의 제작 시안을 구상해 보자.



(5) 제작 시안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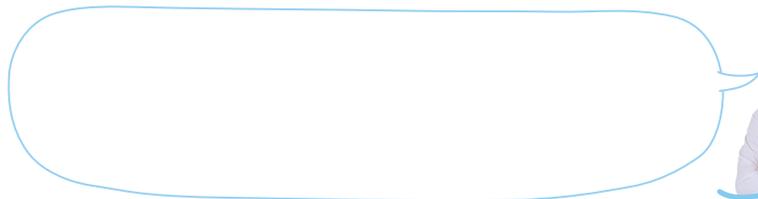
1 완성한 인포그래픽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고,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해 보자.



2 내가 희망하는 진로나 나의 관심 분야에서 행복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기후 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 앞으로 환경적 요인들이 일상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지 않을까? 나는 에너지 환경 공학과에서 대기 환경 공학이나 환경 생태학 등을 공부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2)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학습 목표

- 사회·문화 분야의 책과 자료가 지닌 특성을 파악하며 주제 탐구 독서를 할 수 있다.
- 기술의 발전과 소외 문제에 관련된 책과 자료를 탐색하여 읽으면서,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 탐구 독서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소단원 활동 미리 보기

1 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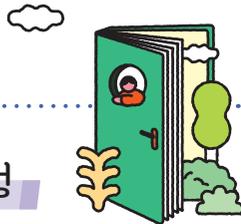
-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 주제 선정하기
- 주제 탐구 독서 계획 완성하기

2 탐구 독서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자료 읽기
- 가) 「고립의 시대」_ 노리나 허츠
- 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_ 한국교육방송공사
- 읽은 내용을 분석하고 사고 확장하기

3 관점과 견해 형성



- 기술의 발전과 소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 수립하기
-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제시하기
- 탐구 과정 및 결과를 반영하여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4 공유와 성찰

-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 탐구 과정 및 결과 성찰하기





‘소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소단원 활동 준비하기

- 주변이나 매체를 통해 접한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말해 보자.

예 이주 노동자 차별 문제

- 위에서 말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주제 선정



이찬이와 친구들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관해 주제 탐구 독서를 수행하고, 각자의 진로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찾은 뒤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이찬이와 친구들이 탐구 주제와 탐구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주제 탐구 독서 계획을 완성해 보자.

1 다음 두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 주제와 탐구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도움말

㉠과 ㉡은 기술의 발전이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심화할 수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를 참고하여 탐구 질문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소셜 미디어가 쏟아 내는 다양한 콘텐츠는 이용자로 하여금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즉 ‘소외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포모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세상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는 증상으로, 포모에 빠진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나 지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



- 『동아일보』, 2024. 8. 12.

㉡ 사회적 보조 로봇은 노인이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치매 증상이 있는 한 70대 노인의 경우 평소 “응.,” “아니.”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보조 로봇과 소통하면서 “아이고, 너 예쁘다.”와 같이 문장 단위로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겨레』, 2022. 10. 6.

(1) ㉠, ㉡의 사례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 ㉠: _____
- ㉡: _____

(2) 이찬이의 생각을 참고하여 모둠의 탐구 주제와 탐구 질문을 확인해 보자.

탐구 주제

탐구 질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모둠의 탐구 주제는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야. 제시된 사례를 보니 기술의 발전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기술의 발전이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소외 문제를 심화할지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



2 다음은 이찬이와 친구들이 세운 주제 탐구 독서 계획이다. 친구들의 생각을 참고하여 계획을 완성해 보자.



도움말

주변이나 매체에서 접한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다양하게 떠올려 보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소외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제 탐구 독서 계획

1 기술의 발전과 소외 문제를 다룬 책이나 자료 선정하기

✧ 선정한 책과 이유

『고립의 시대』는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가 쓴 사회학 분야의 책이다. 6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 소셜 미디어가 불러온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어 탐구에 적합할 것 같다.



이 책 외에 또 살펴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
-
-
-
-

2 자신의 희망 진로와 연계하여 탐구 수행하기

✧ 나의 탐구 계획

나의 희망 진로는 상담사이다. 디지털 소통의 발전이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청소년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려고 한다.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

-
-
-
-
-

3 탐구 과정 및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법

다큐멘터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 웹툰 카드 뉴스 다큐멘터리

-
-
-
-
-



탐구 독서



다음은 디지털 소통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기술의 발전이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며 읽어 보자.



고립의 시대

_ 노리나 허츠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고립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할까?

· _____

분열된 자아

5

공감 능력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공감 능력을 심각하게 줄여준다. 이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의를 잘게 파편화해 분열된 자아를 만들기 때문이다. 분열된 자아는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물리적 현실과, 화면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수십, 아니 어쩌면 수백 건에 달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의 주의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을 오롯이 주기도,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10

놀라운 점은 이런 효과가 꼭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워싱턴 디시(D.C.)의 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100쌍의 사람들을 관찰하여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을 탁자에 올려 두었을 때, 또는 그냥 한 손에 들고 있기만 했을 때도 사람들은 서로 덜 가깝고 덜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스마트폰이 상호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치명적이었으며 각자 상대에게 덜 이해받고 덜 지지받고 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공감도 연습이 필요하기에 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공감 능력은 자주 사용

15

20

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스마트폰이 공감을 방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용자의 주의를 야금야금 빼앗기 때문만이 아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의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에게 논쟁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반응은 다른 사람의 견해가 자신의 의견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그 견해가 전달된 매체(비디오, 오디오, 문자)가 무엇이나에도 영향을 받았다. 인간적인 형태와 목소리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그만큼 평가자는 상대를 인간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이 현상은 실험 참가자에게 연사의 견해가 적힌 원고만 주었을 경우 가장 두드러졌다. 스탠퍼드 대학의 자밀 자키 교수는 “성근 상호 작용으로는 공감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전자 우편과 문자 메시지는 오해를 배양하는 페트리 접시와도 같다. 2016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이모지를 보고 네 번 중에 한 번은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서로를 오해했다. 일련의 연구에서 전자 우편에서는 빈정거리는 말이 진심 어린 말로, 열의가 조롱으로 보일 때가 잦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문자화된 감정 가운데 가장 알아보기 쉬운 분노조차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소통은 정서적인 연결이나 공감, 이해를 돕기는커녕 대화의 질을 저해하고 그 결과 관계의 질까지 해치는 심각한 결점과 단점을 지닌 셈이다.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소통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직접 나누는 대화를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간에 단절되게 한다.

 참가자는 비디오, 오디오, 문자 중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한 상대를 가장 인간적으로 느꼈을까?

페트리(Petri) 접시 둥글고 납작하며 뚜껑이 있는 유리 접시. 세균 배양 따위의 의학, 약학, 생화학 실험에 주로 쓴다.

이모지(emoji) 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그림 문자. 이모티콘은 문자나 기호를 그림처럼 활용하지만, 이모지는 그림을 글자처럼 컴퓨터에 입력한다.



디지털 중독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을 보는 데 할애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집어 들려는 충동에 저항하려면 큰 결단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디지털 기기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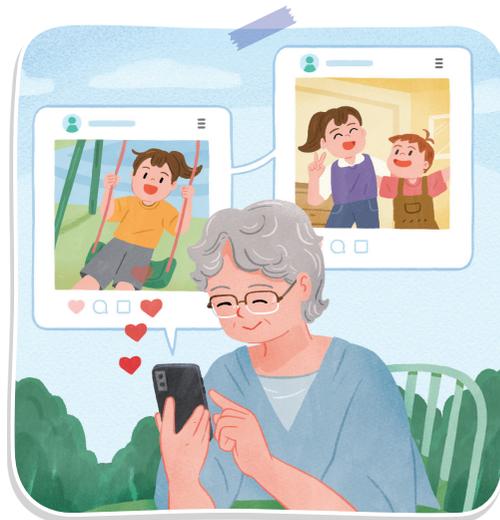
 소셜 미디어의 순기능은 무엇일까?

디지털 중독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상 대화가 직접 만나는 주변 사람과의 대화보다 나을 수 있다. 타국에서 온 노동자는 매일 소셜 미디어로 고향의 자녀와 연락을 하고, 낭포성 섬유증 환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같은 병을 앓는 이를 한 명도 알지 못하지만 온라인 지지 모임에서 위안을 얻으며, 소셜 미디어에 고마워하는 어느 할머니는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방식으로 손주들과 연락한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셜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공동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에게 구명줄이 되어 주며 고립을 조금 더 견딜 만하게 해 준다.

10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과 외로움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한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또래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횟수

15



가 10퍼센트 증가할 때마다 외로운 정도가 13퍼센트 증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0년대 미국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직접 어울리는 시간이 1980년대에 비해 일일 평균 한 시간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이 경향성이 소셜 미디어 사용량의 증가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청소년 이 겪는 외로움이 2011년 이후 심화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바로 그해 스마트폰을 소유한 10대의 수도 급증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미국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23퍼센트였지만, 2018년에는 95퍼센트까지 상승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외로움의 연관성을 보여 주었지만,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외로운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더 사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소셜 미디어가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최근 두 건의 획기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을 단순히 보고하라는 요청만 받은 것이 아니라, 습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이러한 변화가 행동과 기분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관찰, 비교해 봐야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결과는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한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량을 플랫폼 품당 하루 10분으로 제한한 결과 외로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후속 연구들의 표준이 된 또 다른 연구는 두 달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 절반은 소셜 미디어를 평소처럼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전부 비활성화했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한 집단은 전에 소셜 미디어에 쓰던 시간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쓰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자체를 덜 사용했고 친구나 가족을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행복감은 더 크게, 삶에 대한 만족감도 더 크게, 불안감은 더 적게, 그리고 외로움은 그리 현저하게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더 적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관적 웰빙을 증진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소셜 미디어 삭제는 심리 치료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40퍼센트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두 건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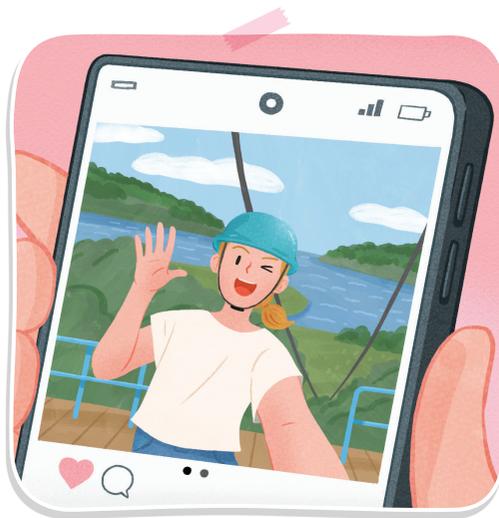
공개적인 거절과 창피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소셜 미디어에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없거나 배제당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점이다. 아주 일상적인 사고 모임도 자주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쉽게 눈에 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좋아요’, ‘공유하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유행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글을 게시하고도 남들에게 반응을 얻지 못하면, 단지 거절당했다거나 스스로 보잘것없다는 느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창피함마저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절당했다는 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학 교수와 피터가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며 두려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느 정치학 교수는 원래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게시물을 작성하려는 일념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다듬느라 수 시간을 흘려보내곤 한다. 그 시간을 연구에 쓰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롭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이와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대학원생 제니퍼는 소셜 미디어에 올릴 완벽한 사진을 찍고 꾸미느라 자신이 기록하는 그 경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제니퍼는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집라인 타는 제니퍼’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느라 실제로는 집라인을 타지도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유대를 형성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 역시 놓치고 말았다.



공개적으로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 세대에게 가장 큰 불안을 유발한다. 어느 아버지는 딸이 소셜 미디어에 새 글을 게시한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런던에 사는 8학년 학생인 피터는 “글을 올린 후 희망을 품고 기다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무 댓글도 없으면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지? 내가 뭘 잘못된 거지?’ 스스로에게 묻고 묻고 또 물으며 괴로워한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실제로 이는 청소년 드라마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른 점은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역학 관계에 몰고 온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다. 하버드 대학의 쇼샤나 주보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인 비교의 강도, 밀도, 파급력 차원에서 새 시대를 열었으며, 청소년은 자기 정체성과 목소리와 도덕적 행위 능력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썼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비교가 불러온 심리적 쓰나미는 가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사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공포를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가 불러오는 유해한 영향과 21세기의 외로움이라는 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때문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도 매체와의 연결을 끊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 ‘디지털 없는 날’을 마련해 보자.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 스마트폰의 소셜 미디어 앱을 접근이 불편한 폴더 안으로 옮기거나, 심지어는 아예 지워 버리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을 처분하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휴대 전화를 구입할 수도 있다.

역학 관계(力學關係)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서로 의존적으로 제약하는 힘의 관계.

물론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다. 우리가 디지털 중독을 줄이려면 결단력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을 생각해 보자. 이를테면 정부는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게 했다.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이 담배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위험성 역시 의무적으로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 앱이 열릴 때마다 메시지 창을 띄우거나, 누리집에 배너를 달거나, 스마트폰 포장에 뒤죽박죽된 뇌 그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치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들 기기를 이용할 때마다 잠재적인 유해성을 일깨워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에 쓰는 시간을 줄일 것을 권장하는 공중 보건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이용자 자신만 해치는 중독성 물질인 설탕과 달리, 소셜 미디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소셜 미디어와 설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



▲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

또한 혐오 표현이나 폭력물을 공유하는 등 극히 악질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 적용된 혐오 표현을 식별해 내는 자동화된 메커니즘이 게시물의 뉘앙스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

하며, 더 나아가 이 일을 보조할 인력 역시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독창적인 콘텐츠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힘쓴다면 전 세계는 온라인 유해 환경, 양극화, 소외와 단절 문제에 대처하는 여정에서 크게 진일보할 것이다.

- 5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기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인정하고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르는 금단 현상을 이겨 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일단 소셜 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글을 올리거나 공유할 때 그 글이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에서 더욱 친절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 10 에서 활동할 때 마주하게 되는 분노와 분열의 목소리를 멀리해야 한다. 잔인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것을 공유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줄 생각과 의식을 북돋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넣거나 단절감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을 망설이지 말고 차단하거나 친구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학교 역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 15 에서 갖춰야 할 시민성을 교육하고 소셜 미디어를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그저 별 의미 없는 요란한 시도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외로움과 불행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 영향의 일부만이라도 물리치려고 노력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 『고림의 시대』 (2021)

 소셜 미디어를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리나 허즈(1967~)



영국의 경제학자.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 지도자들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영국의 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소리 없는 정복』, 『부채 위협』,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등이 있다.

내용 점검하기

1 디지털 소통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자.

(1) '분열된 자아'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소통이 관계의 질을 해치는 연구 사례를 정리해 보자.

워싱턴 디시(D.C.)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2) (1)을 바탕으로 '분열된 자아'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

○

○

○

○

○

○

도움말

디지털 소통이란,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석하며, 해석한 메시지를 또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공유·전파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스마트폰 메시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지털 소통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례를 탐색해 본다.

(3) '디지털 중독'에서 디지털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 적고, 이와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찾아보자.

<p style="background-color: #e0f2f1;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디지털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p>	<p style="background-color: #e0f2f1;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나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찾은 유사한 사례</p>

(4) '디지털 중독'에 제시된 소셜 미디어 사용과 외로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자.

연구 결과	• 소셜 미디어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
-------	---

↓

결론	소셜 미디어 사용은 <input type="text"/> .
----	-----------------------------------



(5) '공개적인 거절과 창피'의 내용을 바탕으로, (4)와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를 추측해 보자.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input type="text"/> (으)로 드러내어 <input type="text"/>	을/를 심화하기 때문이다.
--	----------------

2 디지털 소통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 주체에 따라 정리해 보자.

도움말
 '변화는 가능하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본다.

정부	<input type="text"/>
기업	<input type="text"/>
개인	<input type="text"/>
학교/가정	<input type="text"/>

시야 넓히기

3 「고립의 시대」와 다음 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이해해 보자.

도움말

다음 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소외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립의 시대」와 다음 글의 관점을 대조해 본다.

길드(guild) 온라인 게임에서 형성되는 사용자들의 모임, 혹은 집단.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병을 앓던 소년 매츠 스티ンは 근육이 점점 퇴화된 탓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그런 아들을 위해 부모님은 컴퓨터를 선물했다. 마음껏 게임을 하며 최대한 세상을 누비라는 뜻이었다. 매츠는 하루 종일 게임에 매진하다가 2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죽은 후 유품을 정리하던 매츠의 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매츠에게는 이벨린 레드무어 혹은 제롬 워커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게임 캐릭터로 살며 길드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그의 블로그 친구까지 포함하니 매츠의 인간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아버지는 이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아들의 부고를 전했다. 그러자 매츠와 함께 게임을 즐겼던 길드원들은 직접 모금을 해서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매츠의 장례식까지 찾아왔다. 또한 매츠를 추모하기 위해 화면 속 사람들은 게임에서 따로 추모식을 열었다.

(중략)

일본 도쿄에 있는 카페 ‘던(DAWN)’에는 체구가 작은 하얀 로봇들이 일한다. 매장을 누비며 서빙을 하는 이 로봇들은 직원들의 아바타이다. 장애인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한다. 도쿄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히로시마에 사는 이마이 미치오 씨도 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 중 한 명이다. 늘 노동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아바타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 김지윤, 「또 다른 정체성, 마음의 자전거」

(1) 윗글을 읽고 디지털 기술이 소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매츠 스티인의 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이마이 미치오의 사례</p>
---	--

(2) 학생들의 대화를 읽고 책과 자료를 추가로 탐색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도움말

다음 질문은 이찬이네 모둠의 탐구 질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생각해 볼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보고서, 통계 자료,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탐색하여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고 의견을 표현해 본다.

디지털 소통은 현대인의 소외감을 심화할까, 아니면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까?



디지털 소통은 현대인의 소외감을 심화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혐오 표현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기도 해. 이러한 양상의 소통은 소외감을 더 심화하는 것 같아.

디지털 소통은 현대인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매츠 스티븐은 게임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게임 속 세상에서 이벨린 레드무어나 제롬 워커로 살며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었어.



유형	내용
예 통계 자료	<p>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p> <p>사이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복수 응답)</p> <p>단위: 퍼센트</p> <p>—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p>



다음은 한국 교육 방송 공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노인 계층이 당면한 디지털 소외 문제와 이를 극복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하며 읽어 보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노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

• _____



내레이션 햄버거를 드시러 온 이○○ 할머니. 아이고, 그런데 일하는 사람 다 어디 갔나요? 첫 화면부터 식은땀이 납니다.

이○○ 이걸 모르겠단.

내레이션 갈 곳을 잃은 손, 방황하는 눈동자.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셀프 오더, 프렌치프라이, 거기다가 글씨까지 깨알 같습니다.

이○○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레이션 이번에는 할머니의 카드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기계, 사람 참 작아지게 하는 재주가 있군요. 돈을 낸다고 해도 받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이○○ 어디야? 결제하기인데?

내레이션 '이쯤 되니 그냥 안 먹고 말지.'라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는데요.

이○○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내레이션 이럴 때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노인이 된 나와 마주하게 되죠.



내레이션 이○○ 할머니 나이 서른두 살, 처음 자동식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전화 교환원은 점점 사라져 갔는데요. 80년대에는 더 획기적인 차량용 휴대 전화가 나왔습니다. 이후 휴대 전화는 점점 더 빠르고 똑똑하게 진화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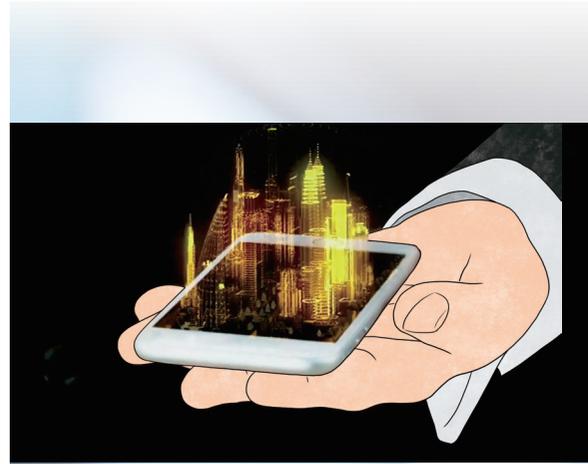
쉬지 않고 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그런데 우리가 놓쳐 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는데요. 기술을 습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화려한 디지털의 이면에는 고령자들의 한숨이 있습니다.

피디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할머니 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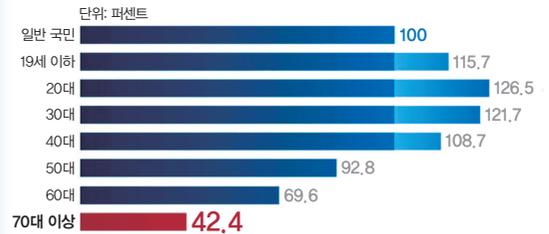
할머니 1 아니, 못 하니까. 가르쳐 줘도 모르겠더라.

할머니 2 글이 작게 나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레이션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42.4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박일준 정보는 공짜고 내가 물어보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정보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내가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빈곤이라든가,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소외에 의한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박일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협회 대표



임춘식 | ○○ 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명예 교수



재연

임춘식 “젊은이들은 앉아서 살고 노인들은 서서 지낸다.” 상당히 해학적인 말 같지만, 좋은 정보,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이 디지털 시대에서 노인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기회는 젊은이들에게 다 가고 있고, 노인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레이션 요즘 열차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길게 줄이 늘어서 있던 이곳, 더 이상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요.

승객 1 부산 가는 거 있어요?

매표원 아니요, 오늘 거 다 매진됐습니다.

내레이션 여기에 직접 가서 표를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좌석 우선권은 온라인 예매자의 몫이고, 입석은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의 지정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승객 2 젊은 사람들이나 할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용 안 해요. 기계 다루는 거 자체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레이션 젊은이는 앉아서, 노인은 서서 간다? 모바일 만능 시대는 열차 안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절이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전체 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앱이나 무인 발권기 이용이 서툰 사람은 마치 2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되지요. 좌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약자가 장시간 서서 이동해야 하는 참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시간이 흘러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디지털 소외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차표 예매 같은 공공 서비스에 노인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레이션 여기는 올해 65세 서□□ 할머니의 일터입니다. 출근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6시간씩 드론을 띄우면서 환경 감시단 일을 하고 계시지요. 돈이야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폼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드론을 배운 지는 2년, 이제 드론 정리는 눈을 감고도 합니다.

서□□ 우연한 계기로 언니가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컴퓨터를 한번 배워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하고 둘이서.

피디 처음 배우실 때 뭐가 제일 힘들셨어요?

서□□ 처음에 배울 때는 입력이라는 단어도 힘들고, 입력, 검색,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피디 이걸 알기 전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서□□ 네, 주위에서 제 표정이 좀 밝아졌다고 합니다. 활기차고 제가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병도 그냥 제가 다 감당하거든요. 정신력이 건강하니까 건강도 좀 따라 주는 것 같아요.

내레이션 할머니가 가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 복지관에 갑니다. 뭘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 갑니다.

서□□ 바탕화면을 바꾸는 방법 먼저 해 보겠습니다.

내레이션 어르신은 어르신이 잘 알죠. 바탕화면 바꾸기부터 알람 설정하기, 사진 꾸미기까지. 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피디 바탕화면 바꾸시니까 어떠세요?

수강생 1 확실히 멋집니다. 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강생 2 애들도 아빠 대단하다 하고,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손자들은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러니까 나도 마음이 뿌듯하지.





내레이션 요즘은 가까운 지역 복지관만 가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이 절찬리에 진행 중인데요. 물어볼 사람은 자식밖에 없지만 돌아오는 것은 짜증뿐이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도,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많습니다. 사회의 배려와 함께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지요.



박일준 사실 디지털은 약자 편이에요. 디지털이 장애인을 만나고, 노인 계층을 만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디지털을 쉽게 접하고 이게 좋은 거구나, 재밌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레이션 앞서 만나 보셨죠. 스마트폰은 잘 못해도 열정이 가득했던 이○○ 할머니. 친한 동생과 함께 이름하여 키오스크 여행을 떠나 봤는데요. 77년 인생에서 무인 발권기는 생전 처음. 춘천 가는 기차가 그래서 더 특별해졌습니다.



내레이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정말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임춘식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는 오늘의 노인들이 내 모습이고 표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 문제는 곧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 『다큐 시선』 (2019)

이해와 확장

내용 점검하기

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두 전문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외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자.



박일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협회 대표



임춘식 | OO 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명예 교수

정보의 격차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	--

(2)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소외의 사례와 원인을 적어 보자.

패스트푸드점

기차역

사례

원인

--	--	--

도움말

서□□ 할머니가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개인적 노력과 내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본다.

(3)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의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개인적 해결 방안

사회적 해결 방안

--	--

2 다음에 제시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큐멘터리 제목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의 의미를 말해 보자.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정말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입니다.

시야 넓히기

3 다음 신문 기사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도움말

앞의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 세대가 사회의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으나, 다음 신문 기사는 노인 소외 문제에 디지털 기술이 도움이 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신문 기사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의 발전과 소외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70대 독거노인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위기를 겪던 중, 인공지능 스피커에 구조 요청을 보내 목숨을 건졌다.

이번 사례는 구미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돌봄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 준다. 구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취약 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365일 24시간 통합 관제·출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이○○ 구미시 복지 정책 과장은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고립 위기 가구의 생명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스마트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25. 5. 23.

(1)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노인 소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도움을 준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 보자.

(2) 다음 질문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기술의 발전은 노인 소외 문제를 심화할까, 아니면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까?

관점과 견해 형성



1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제재 ㉮, ㉯에 제시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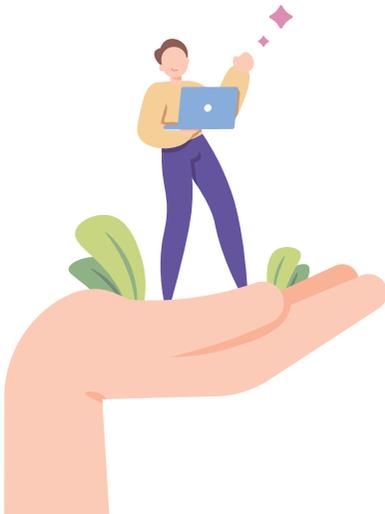
도움말

제재 ㉮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가져오는 외로움 심화 문제를, 제재 ㉯에서는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회 보장 제도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국가 주도의 복지 활동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전개되므로 이를 사회 보장 제도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특정 수준의 복지 급여와 지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사회 보장'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수당, 사회 복지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공 부조는 빈곤 계층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다. 공공 부조 제도는 현재 빈곤한 계층, 즉 최저 생활 수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여타의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가 인정한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회 보험 제도는 보험 방식을 이용해 위험에 대처하는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이다. 앞의 공공 부조 제도가 현재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라면, 사회 보험은 장래에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닥쳐 빈곤해질 때를 대비해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빈곤을 예방한다.
- 사회 수당 형태의 복지 제도로는 아동 수당,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복지 제도는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지원하는 공공 부조와 달리 특정한 인구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급여를 제공한다. 무료 급여란 사회 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 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어도, 빈곤하다는 증명이 없어도 특정 인구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수당 제도이다.
- 사회 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복지 제도를 통칭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간병 서비스, 보육 서비스, 장애인 재활 서비스 등이 그러한 예이다.

- 정원오, 「복지 국가의 사회 복지 제도」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구체적인 해결 방안
가 「고립의 시대」	예 사회 복지 서비스	예 디지털 소통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2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외 문제를 탐구해 보자.

도움말

현대 사회에는 디지털 소외, 지역 소외, 문화적 소외 등 다양한 소외 문제들이 있다. 3-(2) 활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선택하고, 추가 자료를 조사하여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본다.

(1)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소외 문제를 적어 보자.

진로	
구체적인 소외 문제	

(2) (1)에서 적은 소외 문제와 기술의 발전 간의 관련성을 다룬 추가 자료들을 탐색하여 정리해 보자.

	제목(출처)	내용
책		
신문 기사		
기타		

3 탐구 질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 보자.

도움말

제재 ㉠, ㉡ 및 관련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의 입장을 각각 정리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 본다.

(1) 앞의 활동을 종합하여 탐구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 보자.

탐구 질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 관점	↔	부정적 관점
기술의 발전은 소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_____.		기술의 발전은 소외를 심화한다. 그 이유는 _____.
↓		
나의 관점		
나는 _____ 생각한다. 그 이유는 _____.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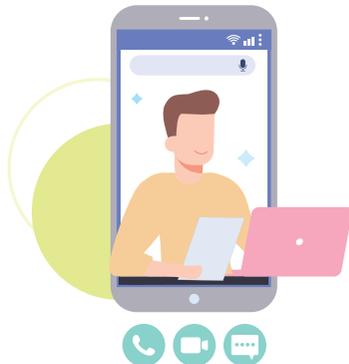
2에서 정리한 자신의 진로와 소외 문제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본다. 1에서 제시된 사회 보장 제도와 연결할 수도 있다.

(2) (1)에서 세운 자신의 관점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예



내 꿈은 상담사야. 나는 상담사가 되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거야.



4 모둠원들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보자.

(1) 3의 활동을 바탕으로 각자 탐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도움말

중심 내용은 다큐멘터리의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을 말하며, 항목 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구성 계획은 정보를 배치하고 제시하는 방식을 말하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제목	예) 노인과 디지털	
기획 의도	예) 기술의 발전이 노인 소외 문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중심 내용 및 구성 계획	기술의 발전이 소외 문제에 미친 영향 예) 1.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의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재연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인 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소외 문제 해결 방안 예) 1.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함.

도움말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출, 줄거리판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의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취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또한 촬영 후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책이나 매체에 이미 제시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직접 제작한 자료를 삽입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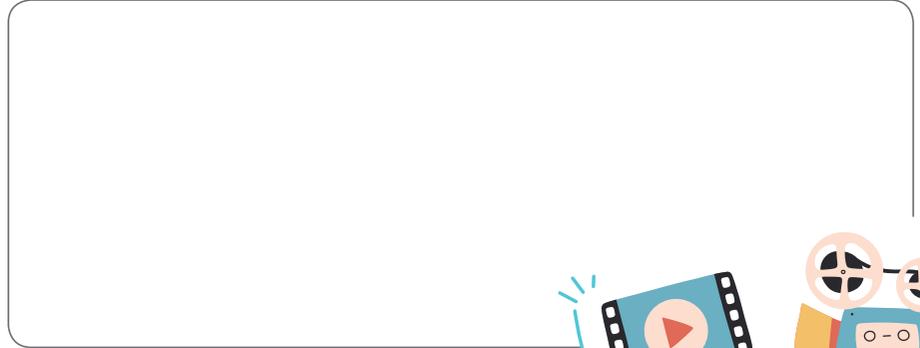
(2) 다큐멘터리 줄거리판을 작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다큐멘터리를 촬영해 보자.

장면	화면 구성	자막	음향	기타
예) 노인의 디지털 소외 사례	[이미지] 휴대 전화 메시지를 열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	손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열지 못하네요.	내레이션	인물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함.





1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교실에서 상영하고, 이에 대한 친구들의 감상이나 평가를 정리해 보자.



2 주제 탐구 독서의 과정과 결과를 친구들과 함께 성찰해 보자.

(1) 친구들과 주제 탐구 독서의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자신의 탐구 과정을 스스로 평가해 보자.

예



나는 자료 탐색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탐구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맡아 탐구 질문에 대한 모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지만, 자료 탐색 및 분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



도움말

영상 언어에는 카메라의 구도, 이 미지나 자막 등 시각적 요소, 대사 와 효과음, 배경 음악 등 청각적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2) 평가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성찰 평가지'를 완성하고, 친구들의 감상 및 평가를 바탕으로 주제 탐구 독서의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

| 성찰 평가지 |

평가 기준	평가
다큐멘터리의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났는가?	☆ ☆ ☆ ☆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 ☆ ☆ ☆ ☆
다양한 영상 언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 ☆ ☆ ☆
	☆ ☆ ☆ ☆ ☆
	☆ ☆ ☆ ☆ ☆

3 단원 마무리



활동 돌아보기 빈칸을 채우며 이 단원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 이 단원에서 내가 탐구한 주제는 _____ 이다.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에서는 _____, ㉡에서는 _____, ㉢에서는 _____ 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이 단원에서 탐구한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_____ 이다.
- 이 단원의 주제 탐구 독서를 마친 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_____ 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 나는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_____ 을/를 읽었다.
- 이 단원에서 읽은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_____ 이다.
- 이 단원의 주제 탐구 독서를 통해 _____ 을/를 알게 되었다.
- 진로와 연계하여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_____ 을/를 제시하였다.



스스로 확인하기 이 단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스스로 평가해 보자.

항목	평가
사회 현상과 문제를 다룬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읽으면서 탐구 주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였는가?	☺ ☹ ☹
행복한 사회의 모습,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견해를 형성하고 공유하였는가?	☺ ☹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진로 및 학업과 연결 지어 제시하였는가?	☺ ☹ ☹



성장하는

독서 탐구 활동



학급 도서 전시회 개최하기

수많은 책 속에서 가치 있고 좋은 책을 선별하여 추천하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관심 있는 주제나 진로와 연계하여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엄선해 우리 학급의 도서 전시회를 개최해 보자. 이 과정을 통해 책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좋은 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독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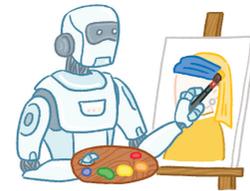


주제 탐색하기



- 다음에 제시된 주제들을 참고하여, '문화'와 관련하여 탐구할 만한 주제를 떠올려 보자.

주제	세부 내용
지속 가능한 문화	<p>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윤리적 소비, 공존과 공생 등</p> <p> 관련 진로 지속 가능 경영 전문가, 친환경 제품 개발자, 환경 컨설턴트, 공정 무역 전문가, 사회적 기업가 등</p>
문화적 다양성	<p>특정 문화나 인종에 대한 차별, 난민, 이주 배경 가정 문제 등</p> <p> 관련 진로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 기구 활동가, 사회 복지사, 인권 변호사, 공공 행정 전문가 등</p>
디지털 문화	<p>새로운 형태의 문화 등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화 확산 등</p> <p> 관련 진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가상 현실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관련 법률 전문가, 게임 개발자 등</p>
인공지능과 예술	<p>예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과 문화적 윤리 등</p> <p> 관련 진로 인공지능 기반 예술 창작자, 인공지능 콘텐츠 개발자, 인공지능 보안 관리자 등</p>



1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 중, 우리 모둠에서 소개할 책의 주제를 선정해 보자.

예 '지속 가능한 문화'를 주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윤리적 소비,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담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 보자.

1 도서 전시회에서 소개할 책의 주제 선정하기

2 선정 주제와 관련 있는 책을 탐색하여 도서 목록 작성하기

2 1에서 선정한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책들을 탐색하여 도서 목록을 작성해 보자.

책 제목	필자	주요 내용
예 『즐거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민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즐기는 삶을 지향하자는 철학을 드러내는 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14명의 사례를 인터뷰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3 도서 목록에서 책을 한 권 골라 읽기

4 책 정보 전달지를 제작한 후 도서 전시회 개최하기

5 우리 모둠의 도서 전시 결과 평가하기

도움말 책을 탐색할 때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추천 도서 목록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도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2에서 작성한 도서 목록에서 각자 책을 한 권씩 선택하여 읽어 보자.

(1) 내가 선택한 책의 기본 정보와 그 책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보자.



선택한 책	책 제목:	_____		
	필자:	출판사:	출판 연도:	
선택한 이유	_____			

도움말 2에서 작성한 도서 목록 중 모둠원들끼리 중복되지 않도록 책을 선택해야 도서 전시회에서 다양한 책을 소개할 수 있다.

(2) 책을 읽은 후, 다음 항목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책의 전체적인 내용
●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혹은 이 책을 쓴 목적
●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
●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진로

4 모둠원들이 각자 읽은 책을 바탕으로 책 정보 전달지를 만든 후, 이를 모아 우리 학급의 도서 전시회를 개최해 보자.

(1) 내가 읽은 책의 책 정보 전달지를 제작해 보자.

예

원칙한 제로 웨이스트는 아닐지라도.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건-미니멀리스트-임사아플링 디자이너... 지속 가능한 삶을 택한 14인의 이야기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 필자: 전민진 ● 출판사: OO북스
- 핵심어: - 지속 가능한 세상
- 다시 생각하기, 조금 더 줄이기, 순환하기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실천
- 책의 내용: 남들보다 조금 먼저 줄이는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상적인 구절: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은 서로 얽힌 층위가 각자의 높이에서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 친환경 및 생태 문제, 지속 가능 경영 등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추천!

책 정보 전달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

- 도서명, 필자, 출판사, 책 표지 등의 정보
- 책을 소개하는 나만의 핵심어 3개
- 간략한 내용 소개
- 인상적인 구절
- 책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나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진로

(2) (1)에서 제작한 책 정보 전달지를 활용하여, 우리 모듬의 도서 전시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 보자.

(3) 우리 학급의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예



전시회 공간 구성 시 유의점

- 독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슷한 주제의 책 정보 전달지는 함께 배치한다.
- 시각적 흥미를 고려하여 글과 이미지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 디지털 화면이나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5 도서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 모듬의 책 전시 결과를 평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주제에 맞는 적절한 책을 선정하였는가?	☆☆☆☆☆
책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
책 전시 공간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전시된 책과 정보 전달지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가?	☆☆☆☆☆
선정한 책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